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받으세요

9월 20일(금)까지,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에서 신청

대구광역시는 지역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4년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사업’은 지역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지원과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사업으로 대구시에서 201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3년 하

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 발생 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2024. 8. 26.)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또는 2019년 이후 졸업생 중 미취업자(대학원생 제외)이면서, 소득수준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이거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구성원일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 학자금 지원 구간: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계값 조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특히 올해에는 지원대상의 졸업연도 기준이 2년에서 5년으로 완화돼 기존에 2022년 이후 졸업생을 대상으로 했던 지원 자격이 2019년 이후 미취업 졸업생으로 확대된다.

또한, 다자녀 가구 학생 지원 정책 개선에 따라, 기존 3인 이상 자녀 가구에서 2인 이상 자녀 가구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은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 약정 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을 지원하며 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1985년생) 이하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청년이다.

신청은 9월 20일(금)까지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시 120달구별콜센터(☎053-120) 및 대학인재과(☎053-803-8663)로 문의하면 된다.

※ 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https://minwon.daegu.go.kr>)-공모·모집 신청-〈학자금대출〉검색-신청하기

한편, 대구시는 2016년부터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그간 지역 대학생 1만 9,682명에게 19억 5,000만 원 정도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청년부실채무자 268명의 신용유의정보 해제를 도와 청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종찬 대구광역시 대학정책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부채상환의 부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우리 지역의 소식을 푸른방송 제보에 전해주세요

푸른방송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푸른방송 제보>를 통해 전하고 싶은 사건/사고/뉴스 등 우리 지역 소식을 전해주세요.



카카오톡 <푸른방송 제보>

1.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서 푸른방송 제보를 검색하세요!
2. 채널 추가 후 1:1 채팅하기로 24시간 제보 가능!

이메일 : gcs_jebo@gcs.co.kr
 전 화 : 053-551-2002 / 053-572-6000

GCS 푸른방송
 GREEN CABLE TELEVISION STATION



달서구-청도군·청도군새마을회와 업무협약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지난 27일(화) 청도군에서 청도군(군수 김하수)·청도군새마을회(전인주)와 초저출생 인구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뉴(NEW)새마을운동(결혼문화) 확산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절벽 재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폭염 속 '희망의 바람'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봉)이 올여름 폭염 속에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펼쳐 주목받고 있다. '시원한 여름나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빛을 받았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에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큰 역할을 했다. 다사성당, 서재성당, 현풍성당에서는 각각 삼계탕과 곰탕을 후원해 무더위에 지친 이웃들의 기력 회복을 도왔으며, '요즘과일'에서 제공한 컵과일 150개는 지역 어르신들의 영양 균형에 도움을 줬다. 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기증한 폭염·감염 대응 키트 100박스와 KBS강태원복지재단이 '여름쿨쿨'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한 선풍기 6대는 폭염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료제공: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